

독자칼럼



리더십 훈련 봉사활동 프로그램 팀장 박선미

리더십 프로그램 많은 참여 권해

안녕하세요. 저는 전기 및 전자공학 전공 04학번 박선미입니다. 학부 2학년인 제게 '리더'라는 칭호는 어울리지도 않을뿐더러, 저는 아직 자기관리도 잘 못해 찢찢매는 미숙한 학생입니다. 단지 남보다 일찍 KAIST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으며,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슴깊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우들에게 제가 배운 내용을 조금이나마 알리고자, 이렇게 몇 자 적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첫 여름방학, 저는 리더십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이었네요. 시험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작한 '리더십 훈련'. 항상 딱딱한 책상에서 단상을 바라보는 것만 익숙했던 저에게, 이 훈련은 정말로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4일 동안 빡빡하게 잡혀있던 일정 속에서, 저는 자기 개발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몸으로 익힐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프랭클린 플래너'는, 제 하루하루의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반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저는 '리더십 훈련'의 신선한 충격에 사로잡혀, 바로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수강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등 기초부터 차근차근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멋지게 소개하는 방법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 기술도 맞볼 수 있었습니다. 이 훈련은 'KAIST 지도자 선발대회'를 통해 절정을 이루었는데, 지금까지 배운 온갖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첫 방학을 보냈으며, 이를 통해 저는 이후의 대학생활에 패기와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을학기가 순조롭게 끝날 무렵, 저는 이번 '사관학교 위탁교육'이 '가나안농학교'에서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약간은 아쉬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것도 내게 주어진 멋진 기회라고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신청했습니다. 첩첩산중에 자리 잡은 농학교에서, 저희 십여 명은 활기찬 기업소리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내가 먼저 근로 봉사 희생'을 외치며, 더불어 사는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자, 식사당번을 맡았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끌어주고 격려하며 험준한 산행길을 마쳤을 때, 그 땀방울이 얼마나 값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1학년 겨울학기의 마지막 역시 리더십 프로그램에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도 모두 의미 있었지만, 이 문화체험을 따라 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의 지식인으로 되돌아간 것처럼, 덕수궁, 창덕궁, 종묘, 성균관, 그리고 여러 고택을 하나하나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말씀을 끊지 않으셨던, 이희중 교수님의 뜨거운 강연에 문화체험은 더욱 빛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는 이 때 깊은 감동을 받아 교수님의 '한국 사상사' 수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어느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정말 알찬 수업이었습니다. 이제는 정규과정으로는 마지막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복지시설인 '천양원'에 가서, 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해맑게 웃는 어린 아이들에게 선생님께서, 때로는 따뜻한 언니 누나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 아닌, 소외되고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인간미 넘치는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 제 자신을 열심히 갈고 닦았습니다.

자기 개발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기초과목들, 선조들의 삶을 몸소 체험하면서 팀워크를 기르는 문화체험, 단체정신과 체력증진을 위한 사관학교 위탁교육, 봉사정신의 함양과 덕을 키우는 봉사활동, 끝으로 글로벌 마인드와 문화적 이해를 넓히는 해외훈련까지,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이 모든 프로그램을 저 혼자만 알고 교육받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카이스트 학우 여러분, 전공책의 산더미에서 잠시 벗어나 저와 함께 리더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글이 우수한 젊은 리더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히계십시오.

이곳의 주인은 독자입니다. 평소 학교 발전을 위한 건의나 사회 현상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시오. 전화 2243 팩스 2245 이메일 hhh@kaist.ac.kr

식당 개선을 위한 능동적 노력 필요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우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가 있을 것이다. "카이스트 다닌다구? 천재구나 천재!"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뭔가 특이할 것 같고 인적구성이 편중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학교도 역시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라는 생각을 자주 해왔다. 요즘 다시금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었다. 바로 식당 앞에서 언제나 나오는 "우리 학교 식당은 왜 이 모양이나? 어쩔수가 없구만! 업체가 바뀌어도 다 똑같은 놈들이야!" 이 문장에서 우리 학교를 우리나라로, 식당을 정치로, 업체를 정당으로 바꾸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문장이 나올 것이다.

이번 시험기간에 학부식당에 대한 엄청난 성토의 여론이 ara/food 게시판에 쏟아져 나왔다. 그 후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학부식당 측의 일방적인 회생으로 개선된 것이므로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시된다. 또한, 이런 문제는 학부식당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현재 업체가 들어온 이후 실시된 2번의 설문조사에서 학부, 서측은 두 번 다 3.0 미만의 경고수준을, 동측 역시 3.1 수준의 낮은 점수를 얻었다는 점은 업체를 바꾸는 것이 식당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우리 학교의 처참한 먹거리 현실에 대한 학우들의 진단과 해결방법은 기나긴 처참한 먹거

리 역사만큼이나 많다. 하지만 그중에 어떠한 것도 사실에 기초한 것은 없다. '우리학교 규모면 3개가 적당해', '쪽문 밖에 비해서 학내식당이 고정식수가 많을 거야', '업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안 바뀌어서 그래' 등 모두가 추측일 뿐 사실에 근거하여 내려진 결론은 없다.

이제 이런 식당 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추측'에 근거한 지루한 논쟁을 끝내야한다. 학교 내,외부 식당과 타 대학 식당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된 문제점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할지를, 학내 식당 개수와 위치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검토하여 바뀌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학생 복지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원 측은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업체 측에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 앞 생선 꼴이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한다. 물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이 잘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잘 되어 새로운 운영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 방식이 지금보다 나은 것이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불확실한 근거위에서 키보드만 두드리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 비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의미있는 걸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석사과정 신소재공학과 전우진

실질적 도움되는 정보 주는 학과 설명회 되어야

요즘 과 선택에 고심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학과 학우들을 위한 학과설명회가 한창이다. 필자 또한 그들 중의 한사람으로서 여러 학과의 설명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몇 군데의 설명회에 다녀오고 나서 더욱더 학과 결정이 힘들어진 듯하다. 이것은 비단 필자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무학과 학우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얼마 전, 어느 과의 학과설명회에 다녀온 뒤 그곳에 가지 않은 지인에게 설명회의 내용을 전하던 중이었다. 장황한 설명 도중 '그래서 뭐 가르친대?' 하는 물음에 할말이 없어졌다. 그리고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내용이 빠져있었던 것이다. "우리 과는 변화를 주도하는 과입니다"하는 멋있는 말로 그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고 관심을 무진장 끌어당기긴 했으나, 정작 그 과의 학부과정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 과

에 진학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하는 것인가 등 과 선택 전후에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그 이후에 갔던 다른 과들의 설명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들 '우리 과의 비전과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할 뿐, 그 과에서 3년 동안 하게 될 학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필자가 참석한 여러 번의 과 설명회 중 단 한 과에서만 주요 과목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곁들였을 뿐이었다.

어느 과의 설명회에 가보아도 그 과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우수한 인재들과 멋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한다. 자연과학과 공학의 어느 분야든지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이니, 좀 더 세밀한,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는 학과설명회가 되었으면 한다.

05학번 무학과 최충현

* 독자 투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 덕 별 게 시 판

- 한국신사들의 태도~ -Epik High 짱!
- 물리학과 피자 조낸 맛있는거다 -무학과 05
- 조낸 추위 $\pi.\pi$
Re: 맞삼. 존내 출삼 $\pi\pi$
- 여섯줄 가을공연 대박!
- 코러스 짱!
- 물리학과로 다들 수렴할것임 ㅋㅋ
- 홍마이 저브따 $\tau\tau$
Re: 분야스키 내 하이킥을 받아라 κ
- 완전볼쌔 케츠만 $\pi\pi$
- 구토스 공연 대박 내자!!
- 난 이미 기말고사 준비중 -05학번 이XX
- Six line, 촌스럽긴 조 완전 대박!
- 경영공학 평점 3.7? 제길!
- 종롤이형 매일 잠만 자 ㅎ

- Infinite, 공연 많이 보러 오세요~!!
- 형은 조낸 외로운거다 -바동 외돌이
- CC 엄장 짱!
- 여름엔 몰랐는데 추우니까 CC 더럽게 부럽네
Re: 여름에도 CC 더럽게 부럽삼
Re: 그렇지만 쓸로부대가 출동한다면
- 감기조심하세요~~~ (판피린톤으로)
- 토팜딸? 무슨 말인줄 아시는분X
- 지성아 골 좀 넣어라~!
- 행님아 나도 간식, 행님아 나도 간식 좀 주세요!
-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텐가? 하하하하하
Re: 하하 커플들 언제까지 그따위로 살텐가? 하하
- 조금만 기다려... 말할게 -K
- 신축주3 +_+//